

# 열거식 계층분류체계에 분석합성식 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 KDC를 중심으로 -

도 태 현 \*\*

##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열거식분류표의 분석합성식 도입 |
| II. 주제의 파셋분석                | VI. 맺는말             |
| III. 복합주제의 표현               | Abstract            |
| IV.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주제표현의<br>문제점 |                     |

## I. 머리말

분류표가 구성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표는 크게 열거식과 분석합성식 (파셋 분류표라 하기도 하고 조합식분류표라 하기도 한다)으로 나누거나 때로는 이들 두 유형을 양극으로 하여 그 중간 형태를 준열거식이라 통칭하기도 하고 보다 여러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1)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자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1)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은 분류표의 유형을 분석합성식의 도입 정도에 따라 Enumerative Classification, Almost-Enumerative Classification, Almost-Faceted Classification, Rigidly-Faceted Classification, Freely Faceted Classification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 2 圖書館學論集(第 29輯)

열거식분류표는 지식이나 문헌의 전통적 분류체계로서 지식의 전 영역을 최상의 류개념에서 최하의 종개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세구분하여 계층적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분류표상에 모두 열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분류표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열거식 계층분류표는 단계별로 구분의 원리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열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모든 복합주체의 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가능한 모든 주제를 열거한다 하더라도 주제세분에 많은 반복작업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 분류표는 방대해 질 수밖에 없다.

분석합성식분류표는 일종의 조합 내지 조립식 분류표로서 일명 파셋분류법(facet classification)이라고도 한다. 분류기호의 조합은 동일류 내의 파셋 사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 간에도 가능하며 관계의 종류까지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복합주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열거식분류표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 분석합성식분류표인 CC(Colon Classification)가 출판되기 전부터 이미 분석합성식의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었다. DDC의 경우 1885년에 간행된 2판에서부터 정기간행물과 같은 형식의 개념에 대하여 공통세목표(table of common subdivisions)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sup>2)</sup> 21판에서는 무려 515쪽에 달하는 7종류의 보조표<sup>3)</sup>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표나 공통세목이라는 수단은 17세기경부터 대도서관의 분류표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DDC 18판에서는 비록 일관성이 결여되

---

House, 1967), p. 94) CC 7판의 프리뷰(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edition 7(1971): a preview,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v. 6, n. 3(Sep. 1969), pp. 193-242. 정영미,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p. 61-63에서 재인용)에서는 파셋분류표를 한 단계 더 세분하여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2) Brian Buchanan,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Clive Bingley, 1979), p. 36.; Brian Buchanan 著, 鄭駉謨 吳東根 共譯, 『文獻分類理論』, (서울: 九美貿易, 1989), p. 44-45.

3) Joan S. Mitchell,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Albany: Forest Press, 1996), v. 1, pp. 1-151.

4) A. A. N. Raju, "A Study of Auxiliary Schedule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Herald of Library Science*, v.17, n. 1(Jan. 1978), p. 4. 朴鍾培, "상가나단의 助記性 理論에 의한 韓國十進分類法과 日本十進分類法の 比較分析," 未刊本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89, p. 1에서 재인용.

고 때로는 어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통세목 외에도 주제의 세구분과 합성을 위하여 파셋원칙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sup>5)</sup>

UDC는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개념(idea)분석'이 완전히 파셋화되어 있는 분류표와 유사하고 CC를 제외한 다른 어떤 분류표보다 분석합성식에 가깝다.<sup>6)</sup> 또한 UDC는 다양한 보조표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합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복합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EC에서도 일반형식구분기호를 비롯하여 특정주제에 지리구분부호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SC에서는 범주표라는 방대한 보조표를 만들어 본표의 기호에 합성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열거식분류표로서 DDC는 지식체계의 표현을 위하여 단순한 계층적 구조를 갖는 것, 대부분의 주제에 전조합된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있는 것, 십진기호의 단순성과 전개성 등으로 인하여 그 실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분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C가 복잡한 주제의 완전한 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위개념으로 전개할 때 구분원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해가는 계층적 구조 때문에 다른 구분원리를 적용하거나 구분원리의 적용순서를 바꿈으로 생겨날 수 있는 주제들은 분류표상에 열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 분류표의 크기가 방대해 진다는 것 등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실 1876년 초판이 간행될 때 44p. 짜리 소책자에 불과하던 DDC는 1989년에 20판이 간행되었을 때 총 3,388p. 4책 1질로 된 방대한 분량에 이르렀고<sup>7)</sup> 1996년에는 21판이 인쇄본과 함께 CD-ROM판<sup>8)</sup>으로까지 간행되었다. 표가 방대해지는 현상은 전형적 열거식분류표인 미국국회도서관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열거식 분류표에, 그 편리함과 실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

5) Brian Buchanan 著, 鄭毅模, 吳東根 共譯, 앞의 책, 동면.

6) J. Mills 著, 山田常雄 譯, 『現代圖書館分類法概論』, (天理: 日本圖書館研究會, 1982), p.73.

7) Joan S. Mitchell ed., 앞의 책, v. 1, lxxix p. 참고.

8) Dewey for windows[CD-Rom], version 1.00, ([Albany]: Forest Press, c1996)

기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분석합성식의 기법이 도입되었으며 현행의 분류표들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CC는 문헌분류표 가운데 분석합성식의 이론을 가장 완전하고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분류표이며, 현재까지는 일반분류표이면서 분석합성식분류표로서 CC를 능가할 분류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주로 CC를 근거로 분석합성식 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기법들이 열거식분류표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KD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제의 파셋분석

### 1. 주제별 파셋 분석

CC에서는 지식일반을 주류(Main Class)들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류는 그 특성에 따라서 다시 수개의 규범류(Canonical Class)들로 세구분되며 이같은 주류와 규범류를 통틀어 기초류(Basic Class)라 한다.<sup>9)</sup> 각각의 기초류는 그 특성에 따라 복수의 파셋에 의하여 세구분된다. 파셋이란 유개념을 중개념으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구분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셋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랑가나단은 기초류를 하위개념으로 분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파셋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생각하였으며<sup>10)</sup> 이들 파셋에 의하여 구분된

9)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 Basic Classification*, 6th ed., (Bombay : Asia Publishing House, 1960), p. 1·20.

10) 위의책, p. 1·25. 그러나 하나의 개념을 그 하위개념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구분원리로서 랑가나단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기본범주 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은 반드시 모든 지식 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소수의 기본범주 만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으며, 랑가나단의 PMEST공식을 부인하고 해당 주제 영역의 문헌들을 검토한 후에야만 구분원리(Principle

개념들을 조합하기 위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연결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본 파셋의 종류

파 셋	의 미
[T] Time	시간, 시대구분
[S] Space	공간, 지리구분
[E] Energy	활동, 작용, 공정, 문제 등
[M] Matter	소재, 재료 등
[P] Personality	본질적 속성

기본적인 파셋들이 모든 기본류 아래에서 한꺼번에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P2], [2P2], [P3], 혹은 [2E] 등과 같이 주제의 성격에 따라 기본 파셋을 보다 세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복수의 파셋에 의하여 기본류를 하위개념(focus)으로 세구분함으로써 다면적 주제분석을 하고 있는 예를 CC 6판의 2 **LIBRARY SCIENCE**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LIBRARY SCIENCE**

2 [P] ; [M] : [E] [2P]

of division)가 분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吳東根 譯, “分類原則에 대한 意味論的 基礎研究 : Austin과 CRG의 理論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第26卷 4號 (1989. 7, 8), p. 56.

11) S. R. Ranganathan, 위의 책, p. 2·30. CC의 7판(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rev. and ed. by M. A. Gopinath,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이 이미 간행되었고 여기에는 파셋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주제가 더욱 세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파셋 분석의 체계를 쉽고 간명하게 관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설명의 목적이 CC의 분류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파셋 방식에 의한 주제 분석의 기법을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찰이 보다 용이한 6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6 圖書館學論集(第 29輯)

*Foci in [P]*

**1 Trans-local**

11 World

13 Nation

14 Region

15 State

16 Division

**2 Local**

21 District

22 City

**3 Academical**

31 Elementary school

32 Secondary school

33 College

34 University

36 Research

**4 Business**

.....

**5 Subscription**

**6 Special class**

61 Child

63 Prisoner

.....

**95 Contact**

**97 Private**

*Foci in [M]*

Same as Foci in [P] for

**General Bibliography**

*Foci in [E] cum [2P]*

1 Book selection

2 Organisation

3 Function

4 Co-operation

**5 Technical treatment**

51 Classification

55 Cataloguing

6 Circulation

7 Reference service

8 Administration

.....

‘Library Science’는 [P], [M], [E][2P] 등 3종류의 파셋에 의하여 각각 세구분되고 있다. 즉 Library Science라는 개념을 [P]파셋(여기에서는 도서관의 유형에 해당됨)에 의하여 도서관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동시에 [M]파셋(이것은 General Bibliography의 [P]파셋 세구분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의하여 자료의 종류를 그 형태(필사본 고문서 필름 지도… 등), 언어, 출판의 성격(단행본 신문 정기 간행물 특허자료 학위논문… 등), 출판기관(대학 정부 개인 등), 출판연대, 판차, 이용자의 계층, 자료의 크기 등에 따라 세구분하고 있다. 또한 [E][2P]파셋에 의하여는 도서관의 활동을 도서선택 자료조직 열람 참고봉사 도서관행정 등으로 세구분하였다.

Library Science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분석된 주제들은 ‘Library Science’의 구분기호인 2와 결합하여 하위개념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파셋에 열거된 주제와 연결공식(Library Science의 파셋 종류와 그 연결순서 연결기호는 2[P];[M];[E][2P]로 규정되어 있다)에 의하여 연결함으로써 복합주제를 표기할 수 있다.

## 2. 공통구분

공통구분은 말하자면 전체 주제, 혹은 복수의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셋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셋에 의하여 세구분된 포커스(focus)들은 모든 주제에, 혹은 필요한 주제마다 반복해서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만 열거하여 독립된 표의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각 주제의 기호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CC의 Common Isolate<sup>12)</sup>(형식 등의 공통구분), Time Isolate(시대구분), Space Isolate(지역구분), Language Isolate(언어구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6관의

12) 7관에서는 Common Energy Isolates, Common Matter Property Isolates, Common Personality Isolates, Anteriorising Common Isolate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MMON ISOLATE**

**Anteriorising Common Isolate (Applicable before Space Facet)**

- a* Bibliography
- c* Concordance
- d* Table
- e* Formula
- f* Atlas
- k* Cyclopedia
- m* Periodical
- n* Serial
- p* Conference proceedings
- v* History
- w* Biography
- .
- .
- x* Works(Collection or Selection)
- .
- .

**Posteriorising Common Isolate: Energy Common Isolate**

.

.

.

Common Isolate는 KDC나 DDC 등 열거식분류표의 공통세구분표와 유사한 것으로 어떤 주제에나 붙여 쓸 수 있으며 그 문헌이 갖는 형식을 표시한다. 특정한 주제를 갖지 아니한 문헌으로서 그 형식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할 문헌을 위하여는 주분류기호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외에 Time Isolate는 주제가 특정 시기나 시간에 한정되어 다루어졌을 때 사용되며, Space Isolate는 주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졌을 때 사용된다.



주제를 특정언어로 한정하기 위하여는 Language Isolate의 세구분을 사용할 수 있다.

### Ⅲ. 복합주제의 표현

CC에서는 하나의 기초류에 속한 각 파셋의 구분지(CC에서는 이것들을 focus라 함)들을 규정된 연결 공식에 의하여 결합함으로써 복합주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서로 다른 기본류 간의 관계, 혹은 이들에 속한 구분지들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의 기본류 아래에서 동일한 파셋에 속한 focus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을 상(相)관계(Phase Relationship)라고 부른다.

동일류 내의 서로 다른 파셋에 속한 주제들 간의 결합이 완전한 결합임에 비하여 이러한 상관계는 불완전한 결합(Loose Assemblage)<sup>13)</sup>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일류 내 서로다른 파셋 간의 결합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Linguistic의 [P]파셋에 함께 속해 있는 '불어와 영어의 관계'와 같은 주제는 파셋 결합에 의해서는 표기할 수가 없다. 또한 '영어가 교육에 미친 영향' '언어가 문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서로 다른 기본류에 속한 주제들 간의 관계도 파셋 연결공식에 의하여는 표현 할 수 없다.

상관계의 복합주제에 포함된 각각의 주제 요소는 '상'(Phase)이라 하며, 그 결합된 순서에 따라 각각 'Phase 1', 'Phase 2'라고 부른다.<sup>14)</sup>

상관계의 수준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13)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앞의 책, p.358.

14) 위의 책, 동면.

15)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p. 332-333 참고.

- 1) 서로다른 기본류 간의 상관계(Inter-subject phase relation-Loose Assemblage 1)  
 둘 이상의 주제(basic 혹은 compound)들을 결합한 상관계를 말한다. 즉 서로 다른 기초류나 그 기초류들에 속한 하위개념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정치와 경제의 관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2) 동일 파셋 내의 상관계(Intra-facet phase relation - Loose Assemblage 2)  
 동일한 파셋에 속한 둘 이상의 개념들(isolate) 간의 상관계를 말한다. '시와 소설의 비교' '불문학과 독문학의 관계' 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3) 동격구분지 간의 상관계(Intra-array phase relation - Loose Assemblage 3)  
 동일한 파셋 내에서도 동격의 구분지(array : 계열)에 속한 개념들 간의 상관계를 말한다. 'Roman Catholic과 Protestantism의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Roman Catholic과 Protestant는 다같이 종교(Religion)류의 [P]파셋 6 Christianity 계열에 속하여 있다)

1967년 이후 CC는 상관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고 상관계의 수준과 종류 따라 연결기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sup>16)</sup>

CC의 상관계 종류와 수준

Nature of relation	Inter-subject phase relation	Intra-facet phase relation	Intra-array phase relation
General	a	j	t
Bias	b	k	u
Comparison	c	m	v
Difference	d	n	w
Tool	e	p	x
Influencing	g	r	y

16) 1960년 CC 6판에서 상관계는 General, Bias, Comparison, Difference, Influencing 등 다섯 종류의 관계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나, 그후 1967년에 이르러 3판에서 사용하던 '도구관계'(Tool)를 추가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의 책, p. 332.

CC 7판에서는 상관계의 종류를 표시하는 지시기호(indicator digit)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호에 &를 덧붙여 각각 &a, &j, &b와 같이 사용하며 상관계의 종류별 의미와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sup>17)</sup>

### 1) General phase relation(일반적인 상관관계)

일반적인 상관계란 나머지 다른 상관계에 속하지 않은 다소 복합적인 상관계를 말한다. 이때 상의 순서는 Class Number나 Isolate Number가 순서상 앞선 것을 제1의 상(phase 1)으로 하여 결합하며 제2의 상은 Relation phase라 한다.

예) Relation betwee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W&aX(W 정치학, X 경제학)

Relation between Morphology and Physiology

G;2&j3(G;2 형태학, G;3 생리학)

### 2) Bias Phase Relation(편향관계)

편향관계(혹은 경사관계)란 제1상의 내용이 제2의 상으로 편향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제2 상에 속한 전문가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용을 선별 재조정하거나, 강조 표준화하거나 예를 들므로써 특별히 재구성된 것을 뜻한다. 이때 제1의 상을 'Biased Phase'라 하고 제2의 상을 'Biasing Phase'라고 부른다.

예) Mathematics for Physicists B&bC (B 수학, C 물리학)

### 3) Comparison Phase Relation(비교관계)

비교관계란 상들이 서로 비교되는 관계를 말한다. Class Number나 Isolate Number가 앞서는 것을 제1의 상으로 하며, 제2의 상을 비교상(Comparison Phase)이라 한다.

17) 김태수, "콜론분류법에서의 상(相)관계", 『情報管理學會誌』, 第4卷 2號(1987), pp. 47-61 ; 鮎澤修, 芦谷清 著, 『資料分類法』, (東京:東京書籍, 1984), pp.144-145 ; Krishan Kumar, 위의 책, pp. 331-335 ;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Ed. 7, 앞의 책, pp. 106-107 등에서 참고. 각종 예의 분류기호는 CC 7판에 의한 것임.

- 예) Plants and Animals compared I&cK (I 식물학, K 동물학)  
Psychology of Man and Woman compared  
S,55&v56 (S,55 남성심리, S,56 여성심리)

#### 4) Difference Phase Relation(차이관계)

비교관계의 일종이지만 특히 두 주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관계를 말한다. Class Number나 Isolate Number가 앞서는 것을 제1의 상으로 사용한다. 이때 제2의 상을 Difference Phase라 한다.

- 예) Difference between Plants and Animals I&dK  
Difference between the Psychology of Men and Women S,55&w56

#### 5) 도구관계(Tool Phase Relation)

도구관계란 하나의 주제가 다른 주제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된 관계를 말한다. 이때 연구되어지는 주제를 제1상이라 하고 도구로 사용된 상을 제2의 상 'tool phase'라고 한다.

- 예) Application of mathematics to engineering  
D&eB (D engineering, B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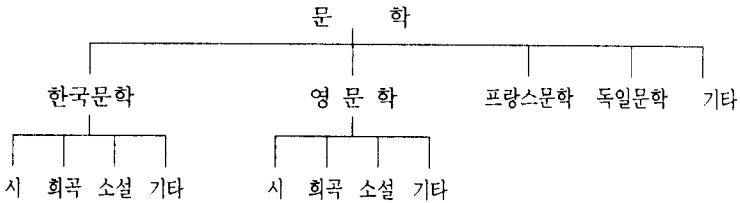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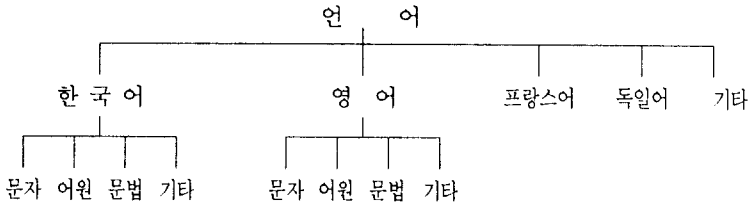
#### 6) 영향관계(Influencing Phase Relation)

한 주제가 다른 한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때 영향을 받는 주제를 제1의 상이라 하고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제2의 상이라고 한다.

- 예) Influence of geography on political science W&gU (W 정치학, U 지리)  
Influence of English literature on Hindi drama  
O,152,2 &trO,111(O,152,2 힌두 드라마, O,111 영문학)

#### IV.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주제표현의 문제점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언어학이나 문학분야 주제 세구분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류원리를 적용하면서 세구분하여 가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가지는 분류표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류의 원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하위개념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한국의 소설, 영미시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구분원리가 적용된 복합주제를 열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층적 구조를 갖는 분류표에서는 원칙적으로 CC에서와 같이 다양한 주제(예를 들면 각국언어로 된 시, 소설<sup>1</sup> 등의 주제와 더불어 개별 언어와 관계없는 시나 소설과 같은)의 표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문학작품을 아동문학, 해양문학, 추리문학 등 그것이 갖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세구분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구분방식에서는 각국문학의 문학형식구분

아래서 세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구분 결과는 한국아동시, 한국아동소설, 한국해양시, 한국해양소설, 한국추리소설 등이 된다. 이러한 계층적 분석에서는 한국 아동소설에 관한 주제표기는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아동문학이라는 주제의 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한 언어나 문학형식에 한정되지 않은 주제별 문학작품은 한 곳에 집중될 수 없게 된다.

계층적 구조를 갖는 열거식분류표에서 이와같은 주제표현 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관한 규칙<sup>18)</sup>을 경직되게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 1. 구분원리(구분기준)는 시종 일관하여 단일 개에 한해야 한다.

(구분원리에 관한 규칙)

.....

- 4. 구분지, 즉 구분된 각부는 그 범위에 있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구분지에 관한 규칙)

.....

만약 이러한 규칙을 하나의 유개념을 하위개념으로 세분할 때 한 종류의 구분원리만을 적용하고 또다른 구분원리는 다음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분지 사이에 중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결과는 위에서 예를 든 계층적 구조를 갖는 분류표의 주제세분 결과와 주제표현 상의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의 주제를 그 하위개념으로 세구분하는데 단 하나의 특성(구분원리)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 규칙에 대하여 Buchanan은 “한 파셋 내의 포커스들은 단 하나의 특성만을 적용하여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9)</sup> 말하자면 하나의 유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구분할 때 하나의 파셋(구분원리)만이 적용

18) 국회도서관사서국, 『도서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서울) : 국회도서관, [1969], pp. 22-24.

19) Brian Buchanan著, 鄭駉模 吳東根 共譯, 앞의 책, p. 66.

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복수의 파셋을 적용할 수 있되 하나의 파셋 아래서는 하나의 구분원리에 따른 구분지들만 열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하나의 파셋 내에서 가정교육, 초등교육, 고대교육, 학교교육, 중등교육, 중세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근대교육 등과 같은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서는 안되지만 복수의 파셋을 적용하여, 즉 교육의 장에 따라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하며, 시대에 따라서 고대교육, 중세교육, 근대교육으로 세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층구조를 갖는 열거식 분류표의 경우에도 표현할 수 없는 주제를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유개념에 복수의 구분원리를 적용하여 하위개념으로 세구분하는 방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열거식분류표의 주제세구분에서 이와 같은 복수의 파셋에 의하여 주제를 세구분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 분류표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제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복합주제의 상관계를 일관된 규칙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복합주제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복합주제를 사전에 표상에 고정하여 나열하거나 분류기호를 연결하여 쓰는 방법을 주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 V. 열거식분류표의 분석합성식 도입

열거식 계층 분류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분석합성식 기법의 예를 KDC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주제의 세분을 위한 파셋분석 방식 도입.

계층분류표가 갖는 주제표현 상의 문제점을 의식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상당히 여러 곳에서 파셋 분석 방식에 의하여 주제를 구분한 예들을 볼 수 있는데 KDC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파셋분석 방식의 적용

KDC 4판<sup>20)</sup>의 020 문헌정보학 분야는 다음과 같은 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020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정보학을 포함한다)
  - 021 도서관행정 및 재정
  - 022 도서관건물 및 설비
  - 023 도서관경영, 관리
  - 024 수서, 정리 및 보관
  - 024.9 특수자료의 관리
    - 91 문서, 사본, 귀중서
    - 92 팜플렛
    - 93 참고자료
    - 95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보고서
    - 96 시청각자료
    - 97 음악자료
    - 98 지도 및 해도
    - 99 기타 특수자료
  - 025 도서관봉사 및 활동
  - 026 일반도서관
  - 027 학교 및 대학도서관
  - 028 [4판에서는 공기호]
  - 029 독서 및 정보매체의 이용

CC 6판 'Library Science'의 파셋 종류는 [P](도서관의 종류), [M](자료의 유

---

2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서울: 同協會, 1996)



형), [E][2P](도서관활동의 종류) 등 세 가지로 나타난다. 위 KDC 문헌정보학 분야의 강목 중 026 일반도서관, 027 학교 및 대학도서관 등은 [P]파셋에 의한 구분지이며, 021 도서관행정 및 재정, 023 도서관경영 관리, 024 수서 정리 및 보관, 025 도서관봉사 및 활동 등은 [E][2P]파셋에 의한 구분지에 속한다. CC의 [M]파셋에 속하는 '자료의 유형구분'이 KDC에서는 독립된 구분지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sup>21)</sup>

우선 KDC에서는 020 문헌정보학의 바로 다음 구분 단계인 요목으로 세구분하기 위하여 [P]파셋과 [E][2P]파셋을 동시에 적용하여 같은 수준에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방법에 대하여 이은철은 “구분은 구분의 원리가 논리적이어야 하며 유, 강, 목의 각 구분은 상호거부적이어야 하고 상호 복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유, 강, 목의 각 명사는 전후조화를 이루고 그 주제는 완전히 동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분류표의 기본조건에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교차분류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sup>22)</sup>고 하였다. 말하자면 '대학도서관의 수서'는 024.2(도서주문 및 수서방법)에 분류해야 할 것인지 027.6(대학교 도서관)에 분류해야 할 것인지가 표상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며<sup>23)</sup> 이러한 복합주제를 정확한 분류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21) 자료의 유형별 구분은 024.9 특수자료의 관리(수서, 정리 및 보관을 포괄하는) 아래에서 세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서 목록 분류 각각의 아래에서 자료의 종류별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수자료의 수서: 024.29 아래에서 세구분, 특수자료의 목록: 024.35 아래에서 세구분 등)

22) 李恩徹, “「콜론」分類法; 發展 및 CC의 觀點에서 본 「KDC」의 問題點에 對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v. 20, n. 1(1983. 1),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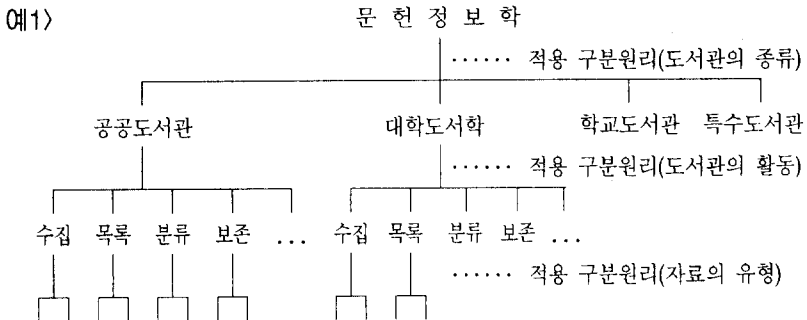
23) 한국십진분류법 해설에서는 “관종별로 수행되는 수서 정리 및 보관, 도서관 봉사 및 활동은 관종에 상관없이 024, 025에 분류한다. 예: 중학교 도서관에서의 약보 정리 024.97 다만 특수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026.8 특수도서관 아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① 도서관 행정 및 재정(021), 도서관 건물 및 설비(022)는 관종에 상관없이 021, 022에 분류한다. 지시에 따라 관종별 도서관을 부가할 수 있다. 예 대학도서관 설계 022.3176 ② 도서관 경영, 관리(023)는 일반적인 도서관 경영 관리만을 분류하고 관종에 따른 도서관 경영 관리는 026-027에 분류한다” 등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관종별 도서관의 활동에 관하여 '유형별 도서관'이나 '도서관 활동' 중 어느 하나의 주제에 선택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021, 022아래서는 도서관의 종류별로 세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주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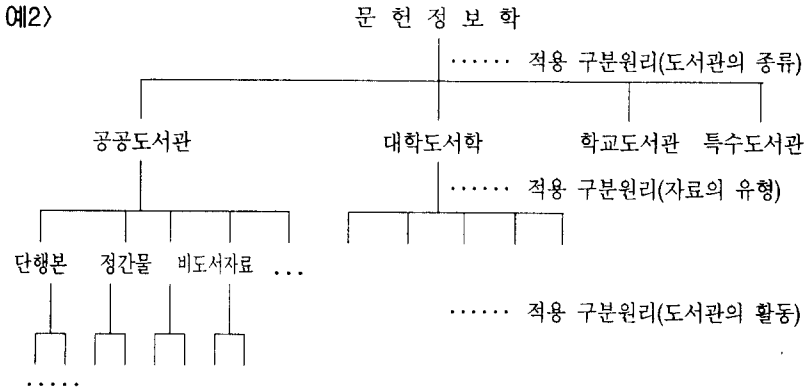
또 하나의 예를 370 교육학의 하위개념 배열에서도 볼 수 있다.

- 370 교육학
  - 371 교육정책 및 행정
  - 372 학교행정 및 경영, 보건 및 교육지도
  - 373 학습지도, 교육방법
  - 374 교육과정
  - 375 유아 및 초등교육
  - 376 중등교육
  - 377 대학, 전문, 고등교육
  - 378 사회교육
  - 379 특수교육

372부터 374까지는 주로 교육내용(CC의 [E][2P][2P2] 파셋에 해당)에 의한 구분지들이며, 375부터 379까지는 피교육자의 수준(CC의 [P] 파셋)에 의한 구분지들이므로 이것 역시 한 유개념의 바로 하위개념에서 복수의 구분원리에 의한 구분지들을 동위로 나열하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계층구조를 갖는 분류법에서 복합주제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구분원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엄격한 계층구조를 지키는 문헌분류표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주제 체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하위 개념을 먼저 도서관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다시 도서관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료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구분원리를 적용하는 순서는 바뀌어 질 수도 있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서'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비도서자료 목록'과 같은 복합주제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갖는 주제세분 방식에서는 역으로 또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구조에서는 도서관의 종류에 관계 없는 분류 목록법, 비도서자료의 관리와 같은 주제 항목은 열거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주제는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게 된다.

KDC에서는, 십진기호체계에 맞추어 구분지의 수를 조절한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문헌정보학, 교육학과 같은 일부 주제들의 하위개념으로의 분석에 복수의 구분원리를 적용하는 파셋분석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즉 도서관의 종류에 따른 구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 활동의 유형에 의한 구분지들을 열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일부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구분지의 교착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주제를 복수의 구분원리에 의하여 동시에 세분하고 있는 예는 200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KDC 200 '종교'는 220 '불교'로부터 290 '기타 제종교'

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교로 구분되고 각 종교 아래에서는 종교공통구분(교리 종조 종전 신앙 포교 교단 예배형식 종파 등)으로 세구분되고 있다. 여기서도 계층적 순차적 구분에 의해서는 불교의 교리 기독교의 경전과 같은 각 종교별 구성요소에 의한 세구분 주제는 표현할 수 있지만 특정 종교에 관계 없는 종교의 구성요소는 여전히 표현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0 비교종교 아래에서 211 교리, 212 종조 교조 개종자, 213 종전 교전, 21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215 종교포교 전도활동 교화활동... 등으로 다시 한 번 열거함으로써 200아래에서 '종교의 종류'라는 구분원리 외에 또다른 구분원리(종교의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구분지를 나열하고 있다. 말하자면 200 종교는 1차적으로 '종교의 종류'로 구분함과 동시에 '종교의 구성 요소'라는 또 하나의 파셋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예를 KDC의 '문학'이나 '동불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주제표현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계층구조를 갖는 KDC의 800 '문학'은 원칙적으로 1차적 구분원리에 상관없이 2차적 구분원리에 의한 구분지를 독립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 예를 들면 '한국시'나 '중국시'와 같이 각국문학 아래서 문학의 형식에 따라 구분된 주제는 표현할 수 있으나 나라에 관계없이 모여진 '시'나 '소설'과 같은 주제의 체계적 표현방법은 없게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C에서는 문학을 어떤 언어에 의하여 쓰여졌는지에 관계없이 1차적으로 문학형식이라는 구분원리에 의하여 구분한 주제, 예를 들면 '세계 명시 선집' '세계 고전소설전집'과 같은 주제를 808 '문학전집' 아래에서 세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DC의 '문학'에서는 계층적으로 구분될 때 적용되지 아니한 구분원리에 의하여 세구분한 주제를 별도로 열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복수의 파셋을 적용하여 세구분한 예라 할 수 있다. 810에서 890 아래에서는 각국문학과 문학형식에 의하여 세구분됨으로서 주제별 문학작품은 배열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갖는 주제에 따른 구분은 808.9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KDC의 '문학'은 1차적으로 각국문학으로 구분

되는 외에 문학의 형식이나 문학의 주제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90 '동물학'은 먼저 동물학자들의 학문적 분류방식에 의하여 무척추동물, 척추동물로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다시 동물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지 속에 동물의 서식지에 따라 나누어진 구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하여 491 일반동물학 아래 491.9에 동물지리학이라는 주제를 두고 서식지에 따른 구분지를 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동물학'의 1차적인 구분지로서 서식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공통보조표에 의한 파셋분석과 기호결합

하나의 개념을 하위개념으로 분석하는 파셋으로서 복수 주제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것을 미리 표로 만들어놓고 본표의 주제를 세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표상의 기호에 결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보조표라 이름하고, 대부분의 열거식분류표에서는 이를 분류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호의 조기성을 살리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다.

KDC 4판은 다음과 같은 보조표<sup>24)</sup>들을 구비하고 있다.

- |            |            |
|------------|------------|
| 1. 표준구분표   | 2. 지역구분표   |
| 3. 한국지역구분표 | 4. 한국시대구분표 |
| 5. 국어구분표   | 6. 문학형식구분표 |
| 7. 언어공통구분표 | 8. 종교공통구분표 |

위의 보조표들은 분류표상의 전체 주제 혹은 특정 주제군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파셋이며 그 중 표준구분이나 지역구분, 시대구분, 국어(언어)구분 등은 CC 6판의 Commom Isolate, Space Isolate, Time Isolate, Language Isolate에 해당하는 것이다.

24)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 앞의책, pp. 13-27.

이들을 그 사용 예에 의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CC	KDC
철학사	Rv	109
	(R 철학, v Common Isolate에서 역사)	(100 철학, 09 표준구분에서 역사)
한국도서관사	2v.495	020.911
	(2v도서관의 역사, 495 Space Isolate에서 한국)	(020.9문헌정보학사, 11지역구분에서 한국)

그 외에 문학형식구분은 CC 6판 O Literature 아래의 [P2]파셋(poetry, drama, fiction 등 문학의 형식에 의하여 분석하는 파셋)에 해당하며, 언어공통구분은 P Linguistics의 [P3]나 [E][2P]파셋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교공통구분은 Q Religion의 [E][2P]파셋과 같은 것이다.

이들을 그 사용 예에 의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CC	KDC
한국어 발음	P495:1	711
	(P495 한국어, 1 [E][2P]파셋에서 음성학)	(710한국어, 1 언어공통구분에서 음운, 음성)
한국시	O495,1	811
	(O495 한국문학, 1 [P2]파셋에서 시)	(810 한국문학, 1 언어공통구분에서 시)
불교의 설법	Q4:5	225
	(Q4 불교, 5 [E][2P]파셋에서 설교)	(220 불교, 5 종교공통구분에서 교육, 교화)

## 2. 열거식분류표의 상관계 결합 예

오늘날 학문의 세분화와 학제간의 교류는 많은 복합주제를 탄생시켰으며, 또한 복수의 주제를 다루는 문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주제를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류원칙<sup>25)</sup>에 의

25) Benjamin A. Custer, "Editor's Introduction", i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19. (Albany: Forest Press, 1979), v. 1, pp. lvii-lix. ; Paul S. Dunkin, *Cataloging U.S.A.*, (Chicago: ALA, 1969), pp. 116-122 ; William Stetson Merrill, *Code for Classifiers*, 2d ed., (Chicago: ALA, 1939), pp. 3-7 ; Q. C. Berwick Sayers,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하여 해결하고 있다.

### 1) 주제 간의 일반적인 관계

우세하게 다루어진 주제에 분류하며, 그 결정은 다루어진 분량이나 저자의 의도 목적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2) 상관계에 있는 경우

· Influence Phase : 한 주제가 다른 한 주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은 영향을 받은 주제 아래 분류한다.

· Bias Phase : 특정 독자층을 목표로 하거나, 이들을 향하여 경사된 주제에 관한 저작은 주제 아래 분류하며 그것이 경사 되어진 요소 아래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Fundamentals of Physical Chemistry for Premedical Students* 라는 문헌은 *Physical chemistry* 아래 분류하며 *Premedical science*나 *Medical science* 아래 분류하지 않는다.

· Tool Phase 혹은 Application Phase : 하나의 주제가 다른 주제의 연구를 위하여 응용되었거나 도구가 된 것은 주제 아래 분류하며 도구 아래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Chemical Calculations :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Mathematics in Chemistry*는 *Chemistry* 아래 분류하고 *Mathematics* 아래 분류하지 않는다.

3) 우세한 주제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최초의 주제에 분류한다. DDC에서 최초의 주제란 표상에서 먼저 나오는 주제를 말하며, 그와 같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분류표에서는 문헌 중에서 먼저 취급된 주제에 분류한다.

---

*Librarians Bibliographers*, 3rd rev. ed., (London : Andre Deutsch, 1955), pp. 234-242. Lois Mai Cha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 an Introduction*, (New York : McGraw-Hill, 1981), pp. 214-215에서 재인용.

4) 두 개 내지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서 하나의 상위개념에 모두 포함되고, 또한 이들의 총체가 그 상위개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와 네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의 상위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포함하는 상위의 주제에 분류한다.

한편 열거식 분류표에서 일부 빈번하게 출현하거나 출현의 가능성이 높은 상관계의 복합주제를 사전에 분류표상에 열거하거나, 부분적으로 CC와 같이 기호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상관계의 복합주제를 사전에 열거하고 있는 예는 KDC 4판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04.4	종교와 과학	210.3	종교와 문명
215.82	종교와 사회의 관계	215.83	종교와 정치
225.83	불교와 정치	235.83	기독교와 정치
370.13	교육과 매스커뮤니케이션, 교육과 문화, 교육과 사회		
521.1	농업수학	521.1	농업통계학
521.4	농업기상학	521.5	농업공학
521.53	농업토목	522.8	농업경영
530.1	농업수학	530.2	공업물리학
600.13	예술사회학, 예술경제학	600.15	예술행정
600.18	예술심리학	601.3	미술사회학
601.8	미술심리학	670.13	음악사회학
671.14	음악생리학	671.18	음악심리학
672	종교 음악	674.8	영화음악
676.4	컴퓨터음악	701.01	언어미학
701.02	언어정책	701.03	언어사회학
701.04	언어심리학	701.12	언어공학
701.8	언어지리학	902.8	역사지리학



서로 다른 주제의 기호를 결합하여 상관계의 복합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이를 '전주제구분' 혹은 '특수주제구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주제를 하위개념으로 세구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관계 역시 하나의 상이 다른 하나의 상에 의하여 그 개념이 축소되거나 연관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열거식분류표에서 이와 같이 특정 주제를 다른 주제들에 의하여 세구분 하는 것은 상관계 표시를 위한 방법의 일종이라 하겠다. 그러나 KDC와 같은 열거식분류표에서는 CC처럼 복합된 주제들의 관계의 종류까지 자세히 구분하고 있지는 못하다.

KDC에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368 기타 제법 (특수법률)

주제 아래 분류하거나 368 아래에서 001-999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전 주제구분)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68.02 (368에 020 문헌정보학을 결합)
- 교육법                              368.37 (368에 370 교육학을 결합)

654.9 주제별회화

654.1 - .8에 속하지 않는 주제를 가진 회화는 001-999와 같이 주제 구분한다.(전주제구분)

- 교량화(橋梁畵)    654.9536(654.9 주제별회화에 536 교량공학을 결합)

336.425 산업별 노동조합

520-589와 같이 세분한다. (특수 주제구분)

- 철도노조    336.42535 (336.42 노동조합에 535 철도공학을 결합)
- 건설노조    336.42531 (336.42 노동조합에 531 토목공학을 결합)

이러한 상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비록 열거식 계층분류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제간의 결합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류표인 UDC에서는 복합 주제의 표기를 위하여 대부분의 열거식분류표에서 사용

하고 있는 보조표 외에 조합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독립된 주제의 결합을 위한 기호

- 연속하지 않는 기호의 결합기호, '+'
- 연속하는 기호들의 결합을 위한 기호, '/'

2) 상관되는 주제의 결합을 위한 기호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제가 서로 영향, 원인, 결과, 수단, 목적, 용도, 비교 등의 관계로 상호 관련되어 있을 때 이들 주제를 결합하는 기호로 UDC에서는 ':' 과 [ ]를 사용한다.

① : (콜론)은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상호 대등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조합된 분류기호는 그 조합순서를 바꾸어 뒤에 나타나는 주제에 의하여도 배열 혹은 검색되게 할 수 있다.<sup>26)</sup>

② [ ] (각괄호)는 두 개의 주제가 종속관계를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결합기호이다. 그러나 이때의 기능은 콜론과 유사하며, 오히려 실제적인 용도는 각괄호를 삽입하여 분류기호의 배열순서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특정한 문헌들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26) 日本ドクメンテーション協會, 『國際十進分類法:分類表』, 日本語中間版 第2版 (東京: 同協會, 1984), p. 11.

27) J. Mills, 앞의 책, pp. 75-76. 다음 예와 같이 콜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중에 관한 재료시험'을 다루는 자료들이 먼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배열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재료시험의 종류(예를 들면 '변형'에 관한 재료시험 등)들이 재료의 종류에 따라 배열된다. 따라서 재료시험의 종류별로 문헌을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철, 알루미늄 등 재료별로 문헌을 집중시킬 수는 없다.

예) 620.1	재료시험
620.173	하중에 관한 재료시험
620.173.669.14	하중에 관한 철의 재료시험
620.176	변형에 관한 재료시험
620.176.669.14	변형에 관한 철의 재료시험
620.176.669.71	변형에 관한 알루미늄의 재료시험

콜론 대신 각괄호를 사용하여 이들 주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이때는 재료시험에

## VI. 맺는 말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파셋에 의한 주제 세분 방식과 파셋간의 결합에 의한 복합주제의 표현 방법, 그리고 파셋 결합 방식에 의하여 표현될 수 없는 복수 주제 및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합성식의 기법을 살펴보았다.

KDC를 중심으로 열거식 계층분류표에서 이와 같은 분석합성식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주제분야에서 주제를 세분할 때 각 계층별로 하나의 구분원리만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세구분하는 계층분류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복수의 분류원리를 적용한 구분지들을 동위의 개념으로 열거하고 있거나(물론 KDC가 열거식 계층구조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십진기호를 갖는 분류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하위개념을 반드시 9개씩으로 구분해야하는 등 주제를 인위적으로 십진기호체계에 맞추어 열거하여야만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나 문학 어학 등에서와 같이 순서상 2차적으로 적용된 구분원리나 계층적 구분에서 채용되지 못한 구분원리에 의하여 1차적으로 구분한 구분지를 별도로 한 번 더 나열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제의 파셋분석 방식과 동일한 것이거나, 최소한 파셋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통보조표를 구비하고 전체 주제 혹은 일부 주제에서 필요 할 때마다 이들 기호를 결합함으로써 복합주제를 표기하거나 주제를 세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관한 문헌이 재료의 종류별로 먼저 배열되고, 다음에 재료시험의 종류(하중, 변형 등)에 따라서 배열 된다.

예) 620.1[669.14]73 재료시험- 철 - 하중  
 620.1[669.14]76 재료시험- 철 - 변형  
 620.1[669.71]73 재료시험- 알루미늄 - 하중  
 620.1[669.71]76 재료시험- 알루미늄 - 변형

3) 상관계에 있는 주제들의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복합주제를 사전에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 주제를 분류표상의 다른 주제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 주제구분'과 '특수 주제구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체 주제로 세구분할 수 있는 주제란, 말하자면 그 주제와 기타의 다른 모든 주제를 상관계로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찬가지로 특수 주제구분은 그 주제와 특수주제구분에서 규정된 범위의 주제를 상관계로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UDC와 같이 상관계의 주제를 결합할 수 있는 조합기호를 아예 공식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분류표도 있다.

KDC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분석합성식 기법은 대부분의 열거식 계층분류표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열거식분류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표의 방대해짐을 막고 복합주제 및 서로 다른 구분원리에 의하여 구분된 주제들까지 망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그러나 KDC를 비롯한 대부분의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파셋분석의 적용이 체계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해당 주제 분야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이나 교육학의 경우 처음부터 복수의 파셋으로 구분된 주제를 요목에서 동위의 개념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하여 종교류의 경우는 각종 종교를 강목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하나의 강을 할애하여 개별 종교와 관계없는 종교의 구성요소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문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먼저 그 작품에 사용된 언어의 종류에 의하여 각국 문학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다시 문학의 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문학의 형식으로만 구분된 작품이나 주제별 문학작품은 문학분야의 종류라 할 수 있는 808 아래에서 세분하고 있다.

열거식분류표에서 파셋 분석이 필요한 주제의 경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 주제의 바로 하위 개념 기호들 중 최

초의 기호 하나를 나머지 다른 것들을 구분할 때 적용한 파셋 이외의 파셋에 의하여 구분된 주제를 배열하기 위하여 할애하는 방법(예를 들면 370 '교육학'에서는 371을 제외한 나머지 요목은 교육내용에 의하여 세분된 주제를 배열하고, 371을 이용하여 기타의 구분원리에 의한 구분지들을 열거하는 방법, 800 문학의 경우는 810을 각국 문학이 아닌 기타의 구분원리에 따른 구분지를 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종교류에서 210을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하위 기호(위의 예에서 210, 371, 810에 해당)를 제외한 나머지 기호들의 계층적 구분에서는 첫 번째 하위기호에서 사용한 구분지의 기호들을 조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것 역시 210 '종교'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공통보조표에 의하여 문헌의 형식이나 주제별로 세구분하는 방식은 KDC에서도 다른 열거식분류표(특히 DDC)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 단지 보조표 종류의 다양성이나, 같은 보조표내에서 구분의 상세성의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아직도 대량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학술도서관에서는 KDC를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본표의 상세한 정도와 관련되는 문제이겠지만 보조표의 상세성도 이러한 문제의 일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KDC에서 상관계에 있는 복합주제는 미리 본표상에 나열하는 방법과, '전 주제 혹은 '특수주제구분'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합주제를 미리 예상하여 어느 한 곳에 배열하고 있는 예들은 종교와 정치(215.83), 언어심리학(701.04), 컴퓨터 음악(676.4) 등의 많은 예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이용자가 '종교와 정치'에 관한 문헌을 정치라는 주제로부터 접근한다면 '정치'라는 주제로 부출표목을 작성하지 않는 한 이 문헌은 검색될 수 없게된다. 왜냐하면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표기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기호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정치학 일반'에 관한 분류기호로 부출하기에는 해당 주제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전주제 구분'이나 '특수주제구분'에 의한 상관계 결합은 모든 주제분야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주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학제간의 연구나 문헌이 빈번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들을 효과적으로 표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독립 주제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그 기호들을 도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합주제의 열거를 줄이고 복합된 주제들의 기호상 표기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것으로부터라도 검색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A Study on the Analytic-Assembling Methods Applied in Enumerative-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s**

Doh, Tae-Hy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nalytic-assembling(faceted analysis) methods applied in enumerative-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s. (mainly in KDC) The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For the enumerative-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s, in principle the subjects are divided into subdivisions by only one facet at the same level, and step by step. However some subjects, for exampl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others in KDC, are divided into subdivisions by multiple facets at same level like Colon Classification.

2. Most of enumerative-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s have various kinds of auxiliary tables, such as standard subdivisions, areas, periods, and languages. Each of them is considered as foci by a facet applied to subdivide all kinds of subjects or some special subjects into lower level.

3. To classify the compound subjects with phase relation, KDC provides ready-made classification numbers or notes that says "divide by 001-999" (whole subjects) or "divide by xxx-xxx"(limited scope of subjects). The ready-made compound subjects, or subdividing by whole or limited scope of subjects are similar to representation of phase relation in Colon Classification.

Yet these analytic-assembling methods in KDC are needed to be

---

\* Associate professor, th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supplemented and amended. Subdividing methods for faceted analysis have to be unified through the whole schedule. The auxiliary tables should be enlarged and subdivided more specifically. And for representation of phase relation, the linking signs can be useful in KDC as well as UDC and other analytic-assembling classification schemes like Colon Classification.